【사례발표 2】

필리핀의 줄다리기 의례 ‘푸눅(Punnuk)’

노마 레시피시오 | 필리핀대학교 교수

1. 개요

푸눅(punnuk)은 필리핀 전통 줄다리기로, 홍두안(Hungduan)지역의 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벌이는 전통의례이자 놀이이다. 이는 하파오(Hapao)강 유역에서 거행되는데, 수확 후 추수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의례로 지켜 내려왔다. 푸눅은 농사 주기의 끝과 새로운 농사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종통고(始終通告) 의식인 것이다.

푸눅은 환락적이다. 아얀간 언어를 구사하는 부족민들은 주로 홍색과 같은 대담한 색상의 복장을 갖추고 등장한다. 창공 밑 녹음이 가득한 곳에서 참가자들은 계단식 농지에 일렬로 서서 협상을 시작하는데, 참가자들이 강둑에 도달하면, 경기에 가속도가 붙는다. 각 팀이 서로 맞은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시작하면 경기장의 흥분은 계속 고조되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마저 참가자들의 근골의 강인한 힘을 더욱 부각시킨다.

2. 물리적 환경 : 장소와 볼거리

홍두안마을은 코델라 산맥(Cordillera Mountain Range)의 해발고도 2,000-3,000 미터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푸가오(Ifugo)의 다른 지역들처럼, 홍두안마을의 하파오, 반(Banng), 눙울루난(Nungulunan) 지역은 산 어귀에 광범위한 계단식 농지(階段田)를 형성해 쌀을 재배한다. 넓게 펼쳐진 분지 위의 경작지들은 파종기와 춘궁기(1-3 월)에는 수십 톤의 초목이 우거지고, 추수기(4-6 월)를 거치면 황금 들녘의 장관을 이룬다. 논들은 수풀로 이뤄진 산들로 둘러 쌓여있는데, 마을을 둘러싼 이 숲이 바로 하파오강의 수원지다. 남쪽 고지대 수역과 북서쪽 저지대의 지류들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다.

계절풍인 몬순 풍 이 다가와 장마(8-10 월)가 시작되면 강 유역에 물이 차고, 1-2 월경에는 물줄기가 가늘어진다. 봄이 되면 마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열대기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에는, 마을의 강 유역에 설치된 관개수로를 통해 계단식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다. 이 수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강바닥에 근접한 가장 낮은 곳에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먼동이 틀 무렵과 초저녁에는 연중 내내 서늘하지만, 모종을 파종하는 시기(12 월)부터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기(5-6 월)에도 대체로 서늘한 기후를 유지한다.

3. 농경기반의 경제

마을 주민들의 주 수입원은 쌀농사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특산품인 쌀 품종이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찹쌀, 적미(赤米), 둥근 낟알 쌀, 긴 낟알 쌀 등이 인기가 많다.

씨앗의 파종을 12 월 초에 시작해서 계단식 농지의 모든 파종은 1 월에 마무리 된다. 3 월에는 모종들이 약 91.44cm 까지 자라는데 그러면 곡물의 줄기에 변화가 생긴다. 식물의 가장자리에서 발아가 진행되는 것이다. 5 월에는 곡물들이 여물어감에 따라, 농경지 전체가 다양한 황금색으로 수놓아진다.

카모테(Camote, 고구마)와 타로, 콩과 작물들, 펫차이(Petchay, 배추과)와 같은 뿌리 작물들은 산의 가장자리를 개조한 야채 밭 공터에 심겨진. 양파, 마늘, 토마토, 가지 등은 작은 고분들이나 논의 한 구석에 파종한다. 사요테(Sayote)나 호박 덩굴 같은 식물들은 집 마당의 가장자리에 심어 재배한다. 논에서 잡은 어패류에서 섭취할 수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주민들은 돼지와 닭을 사육한다. 야생의 멧돼지, 사슴, 닭 같은 사냥감들은 멸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별미로써 인기가 많다. 꿀은 숲 속 지천에 널린 벌집에서 다량으로 채취한다.

마을 사람들은 섬유직물, 나무 조각, 금속세공 등과 같은 보조 생계수단으로 수입을 충당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기도 한다.

계단식 농지에서 재배와 파종, 수확 등은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남성들은 경작지 보수 작업이나 제방의 유지 보수, 돌담 쌓기, 강의 유역이나 관개수로에서 물을 댈 수 있는 노선을 찾아 새 경작지를 개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마을 공동의 일을 위한 남자들의 책임 역시 다양하다. 관개수로의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물의 흐름과 분배가 경작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남자들은 건설 자재들을 수송하는 책임도 맡고 있으며, 곡식을 수확해서 곡물창고에 저장시키는 일도 수행한다. 그리고 목공 일과 집이나 쌀을 저장할 곡물창고 등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4. 사회구조

사회는 계층화 되어 있고, 그 안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성별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 상류층들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농으로, 큰 계단식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상류층을 카다구안(Kadanguan)이라 한다. 이들은 많은 논과 통상 2-3 개의 곡물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곡물창고 안에는 수십 톤의 쌀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외에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14-15 세기의 구형 항아리 또한 카다구안의 큰 자산이다. 이 항아리에는 집안의 여성들이 쌀을 빚어 만든 술로 가득 채워져 있다. 카다구안은 부를 상징하는 순도 높은 금 목걸이 또한 보유하고 있다.

카다구안의 순 자산은 여러 루트를 통해 축적해 온 것인데, 목공 일이나 나무 조각, 직물 직조 같은 일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쌓았다. 이렇게 축적된 부는 그들의 자녀를 필리핀의 명문 대학(바기오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대학들)에 보내 공부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 마을의 계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종가(Dumupag)나 상류층의 가족들은 모든 추수와 연계된 의례적인 활동들을 관장한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계층은 음몬누(Umonuh)이다. 그 다음은 평균 수준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마이카틀로(Maikatlo)이고, 적은 경작지 수를 소유했지만, 규모가 큰 경작지를 가진 마이카팟(Maikappat)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런 이름 있는 계층은 아니지만, 한 두 개의 작은 구획만을 소유한 주민들도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들은 각기 다른 역량과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가장 상류층인 카다구안은 그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규모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논에서 파종과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두 번째 계급과 그 아래 계급들은 상위단계 계층의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자신들의 특권을 행사하게 된다. 가장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상류층의 모든 노동에 투입된 다음에야 자신의 일을 혼자 해결하는데 그 때문에 노동량이 가장 막대할 수밖에 없다. 대신 노동에 투입된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로 현금이나 쌀을 얻게 된다.

5. 종교와 신념 체계

필리핀은 오래 전부터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종파가 들어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정령숭배나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는 오랜 종교의식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푸가오 밖으로 나갈 때나 해외를 여행할 때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 토착 신이나 정령들에게 기원한다. 또한 개인의 분실물을 찾아야 할 때, 병든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랄 때에도 자신의 신들이나 정령들에게 기도한다. 심지어 구혼자나 연인, 친구를 찾아야 하는 순간에도 신들이나 정령들을 의지한다. 그 중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정령숭배를 통해 바라는 최고의 축복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축복이다. 특히 풍년이 들어 수확을 더 많이 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모든 의례들을 뭄바키(Mumbaki)나 전문 주술사에 의해 주도되는데, 하파오, 반, 눙울루난 마을에는 4 명 이하의 뭄바키가 있고, 그들을 돕는 두 수련인과 조수가 있다.

6. 전통의식 ‘호우와흐(Houwah)’

홍두안지역의 하파오, 반, 눙울루난 세 지역은 수확 후에 치르는 세 가지 의식이 있다. 바키(Baki), 이눔(Inum), 푸눅의 세가지 의식이 하오와(Houwa)다. 바키와 이눔은 뭄바키가 주도한다. 이 때 뭄바키는 수확을 도운 신께 감사를 드리고, 자손들(dumupag)에게 농지를 유증한 선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주문을 낭송한다.

• 바키 : 바키는 점술 의식으로 닭이나 돼지 같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먼저 희생동물의 담즙이나 날짐승들이 신들과 조상의 영혼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된다. 그 제물들이 검증을 통과하면, 마을 원로는 높은 계단식 논둑에 서서 마을주민들에게 푸눅이 다음날 개최될 것임을 알리고,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 이눔 : 바키가 종료되면, 둠파(Dumup)는 쌀로 빚은 술이 담긴 다양한 크기의 세 항아리를 준비해서 의식이 진행되는 제단에 가져다 놓으면, 뭄바키는 기도 중간에 각 항아리를 개방한다. 뭄바키가 작은 항아리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한 모금 취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큰 항아리에서 와인을 음복할 수 있다. 종가에서 흘러나오는 환락의 잔치 소리는 마을 전체가 다음날 있을 푸눅을 치르기 전까지 주연에 참석하라는 신호로 간주된다.

• 푸눅의 도구들 : 푸눅은 키나그(Kina ag)와 파키드(Parkid)로 구성된다. 키나그 는 당기는 데 사용되는 물체이고, 말린 벼의 줄기와 ‘a-e’라 불리는 덩굴을 단단히 결합해서 완성하는데, 사람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원형 모양이 되기도 한다. 파키드 와 키나그를 접합하는 물체는 내구성이 탁월한 아토바나무(Attoba, 두홍화)묘목이다. 파키드의 이상적인 길이는 5m 에 둘레 10cm 이다. 묘목 주변에서 파키드 아래 갈고리가 생성되면 키나그에 걸어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남성들은 모든 재료들을 수집해 키나그를 제작한다. 푸눅을 시행하는 날, 세 그룹의 참가자들은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물의 지류들이 만나는 강가로 행진한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동쪽은 하파오, 남서쪽에서는 반, 그리고 북서쪽은 눙울루난 방향) 그들은 덤불이나 계단식 논둑을 통과해서 눈히푸카나(Nunhipukana)에 도달할 길을 선택해 집합한다. 남자들이 동아 잎으로 장식된 파키드와 키나그를 운반하는 동안 수많은 잎이 달린 나뭇가지들이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가자들이 강가로 점점 다가올수록, 신경전과 야유의 공방전은 점점 과열된다. 처음으로 눈히푸카나에 도착한 두 팀은 본격적인 시합에 앞서 서로 겨루기 의식을 하게 된다. 뭉고파(Mungopah), 마을 원로들은 이 의식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도록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기도 후에는 키나그가 강에 던져지는데, 만약 강의 기류가 강하면,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 노선에 있는 원로 중 한 사람이 각 팀의 파키드를 키나그에 안전하게 연결한다. 키나그를 당겨 자기편으로 가장 가까이 끌어당긴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각 팀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려는 마을 주민들과 원로들로 인해 강둑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승리한 팀은 나머지 팀과 다시 경기를 시작해서 시합을 벌인다. 푸눅은 어느 한쪽이 키나그를 잡아당기거나, 파키드가 손상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지쳐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된다.

줄다리기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팀이 승자가 되는데. 승자가 되고 나면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푸눅에서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수확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승자들에게 다음 해의 풍년은 보장된 것이고, 그들의 곡식 창고는 계속 채워질 것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패자들은 다음 해의 흉작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용했던 키나그는 경기 직후, 강에 던져지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떠내려 오는 키나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다. 이것을 통해 하파오, 반, 눙울루난 지역의 추수가 종료됐음을 알린다.

7. 푸눅의 의의

세 지역 공동체는 푸눅을 통해 공동체의 최상의 단합과 조화를 보여 줄 수 있다. 세 팀 모두가 다른 방향에서 왔음에도, 각 팀의 선발 주자들은 눈히푸카나에 3-5 분 내로 도착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모인다. 처음에 있었던 푸눅 참가자들의 야유들과 상대편의 조롱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리드미컬한 응원들은 이 대회가 경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눅은 경쟁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지와 체력, 동료 간의

동지애,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강조한다.

키나그의 창작은 주민들의 창조적인 예술성과 독창성을 그들의 생활 전면에 깃들게 하고, 구전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지게 한다. 이것은 키나그에 그려진 그림에 의해서도 묘사가 되는데, 한 여성의 뺨 전체와 바람을 맞은 헤어가 천상의 직조공과 바람의 여신(Inhabyan)을 묘사한다. 해마다 거대한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여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키나그를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령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준다.

줄다리기를 위해 가장 좋은 파키드와 묘목을 찾아내려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지략과 지식,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어떤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신에게 사행시를 낭독하는 것 또한 마을 공동체가 정령을 경외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자신의 팀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낭독은 푸눅이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그리고 모든 참가자와 관객들이 무사하도록 비는 의식이기도 하다. 뭉고파에 의한 작시법은 공동체의 믿음의 독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된다.

푸눅은 사회계층의 평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다. 계층 간의 경계를 일시적이지만, 허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 간의 경계는 엄격하게 존중되고 통제된다.

결론적으로, 푸눅은 하파오, 반, 눙울루난의 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시간이다. 수개월간 농사를 위해 고생한 주민들이 고초에서 벗어나 다시 새 농사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